롯데 '5000원치킨' 부당거래 행위 논란

치킨업계 "집객효과 노린 미끼상품" 의혹 제기

롯데마트 "대량주문 손해없어" '가격거품' 주장

롯데마트의 '5000원 통큰치킨'이 '영세상권 침해' 논란에 이어 치킨의 원가 논쟁으로 확산되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 5분거리 안에 있는 속칭 '닭세권' 등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9일부터 판매한 5000원 짜리 '통큰 치킨'은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인 1만4000~1만500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판매 3일만에 전국 82개 점포에서 모두 7만4000여 마리가 팔리면서 롯데마트는 '통큰 치킨'으로만 5억원의 매출을 올린 상태다

치킨업계는 롯데마트가 집객 효과를 노리고 치킨을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가 대량주문 등으로 원가를 낮춰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치킨 가격에 대한 '거품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시민 나도윤(37·동구 서석동)씨는 "해마다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어느 순간 치킨도 편하게 즐기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다"며 "치킨을 한 마리에 5000원에 팔아도 남는다면 그동안 치킨전문점에서 비싸게 팔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치킨업계 종사자들은 울상이다.

서구 화정동에서 7년째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8)씨는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치킨때문에 기존 치킨업자들이 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속상하다"며 "생닭 가격이 3000~4000원 수준이라고 해도 튀김옷, 기름, 포장비 등을 고려하면 닭에만 들어가는 원가가 6000~7000원이 넘는데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세금까지 더해지면 실제 이익률은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롯데마트가 치킨만 5000원에 판매할 뿐 무(500원), 소스(200원), 샐러드(2000원) 등 부재료를 치킨전문점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어 결코 싼것도 아니다"며 "롯데마트가 치킨을 손해보고 판다해도 다른 부분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도 "롯데마트가 손해를 보지 않고 5000원에 팔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치킨전문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롯데마트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영세 치킨 전문점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치킨업계에서 공식 제소해오면 롯데마트의 염가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中企 현금사정 좋아졌다

올 현금결제비율 80% … 작년비 3.3%P ↑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현금결제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청이 전국 1만개 중소기업(제조업체 8000개, 지식기반업체 200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판매총액은 전년도 457조원보다 4.8% 증가한 479조원을 기록했다. 판매대금의 결제방식은 현금결제 비율이 80.0%로 전년(76.7%)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원·부자재 구매액은 수입원자재 가격 및 환율 안정 등의 영향으로 219조원을 기록해 전년(238조원)대비 7.9% 감소했다. 구매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은 86.8%로 전년(86.0%)보다 0.8%포인트 늘어났다.

수·위탁거래는 전년 56.3%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한 52.1%,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 의존도 역시 76.7%로 전년 81.6%에 비해 4.9%포인트 줄어 지표가 호전되는 추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투자와 기술개발투자비도 늘었다. 업체당 평균 생산설비투자(기계 · 장치)는 평균 9800만원으로 전년 8600만원 대비 14.6%(1200만원) 증가했다. 기술개발투자비율은 28.5%로 전년(27.6%)보다 0.9%포인트 증가, 업체당 평균투자액이 1억8800만원(전년 1억7700만원)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 '스포티지R' 굿 디자인상

세계적 권위 'iF디자인상' 이어 잇단 수상

광주공장에서 만드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사진〉이 세계 권위의 'iF 디자인상'에 이어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0 우수디자인(굿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12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우수디자인 상품 시상식에서 'K5'가 국무총리상을, '스포티지R'이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독창성과 사용성, 심미성, 환경친화성 뿐 아니라 브랜드 정체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85년부터 시작된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제도는 제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D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디자인대상·핀업 디자인상과 함께 국내 3대 권위의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곧 복귀

내년 GDP성장률 6.1% 전망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달러대에 복귀할 것으로 확실시되며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1%로 전망됐다. 연간 GDP 디플레이터 추정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율은 9.3%로 계산됐으며 여기에 올해 1~3분기 명목 GDP 증가율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간 격차 0.5%포인트를 고려한 명목 GNI 증가율은 8.8%로 추산됐다. 원.달러 기준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천160원가량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올해 명목 GNI는 1조23억달러(1162조7천억원)가 되며 이를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 4887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510달러(2379만원)에 이른다. 즉 이달 하순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는 무난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내년도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4.5%로 발표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평균 1,060~1,1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LG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내년 GDP 디플레이터(2.0%)와 추계인구를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530만원, 2만2998~2만3866달러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2007년의 2만1700달러를 가뿐히 웃도는 금액이다.

/연합뉴스

고객에 장미 한송이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광주점 고광후 점장이 '롯데백화점 연 매출 1조원 돌파 기념 행사'로 매장 방문 고객에게 장미꽃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대우일렉 전자레인지 8000만대 돌파

광주공장 생산 25년만에

광주에서 생산되는 대우 전자레인지가 8000만대를 돌파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1985년 8월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광주공장에서 전자레인지를 첫 생산한 이래 25년4개월만인 지난 10일 누적 생산량 8000만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우일렉은 17년 만인 2001년 누적 생산량 4000만대를 달성했고 이후 매년 평균 440만대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 9년 만에 8000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매번 업계 최초 신제품을 출시하며 트렌드를 주도하고, 각 지역에 맞는 현지 특화제품을 꾸준히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대우일렉은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중고차시장 매물 마티즈〉아반떼〉카니발〉카렌스 順

올들어 1만8364건 … 경차·소형자 '손바뀜' 활발

광주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매물은 뭘까. GM대우의 '마티즈'다.

12일 생활정보신문인 '사랑방신문'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이 신문에 게재된 중고차 매물 1만8364건을 조사한 결과, 경차와 소형차의 손바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매물은 경차인 GM대우의 '마티즈'로, 총 942건이 등록돼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 '아반떼'(870건), 기아차 '카니발'(777건)과 '카렌스'(6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형차 이상에서는 현대 '그랜저'가 641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쿠스'(559대), 쌍용 '체어맨'(555대) 등의 순이었다.

가격대별로는 500만원 미만의 알뜰형 중고차 매물이 많았다.

500만원 미만 매물은 7406건으로 전체 40.4%를 차지했으며, 500만~1000만원 미만은 4251건(23.1%), 1500만~2000만원 미만은 3475건(18.9%), 1000만~1500만원은 2134건(11.6%) 등이었다.

연식별로는 10년 이상 차량이 4657건(25.6%)으로 4대 중 1대꼴이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 차량은 2127대로 전체의 11.6%를 차지했다.

완성차 업체별로는 광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아차보다 현대차의 매물이 조금 많았다.

현대차 매물은 모두 7121건으로 38.8%를 차지했고, 기아차 5041건(27.5%), GM대우 2679건(14.6%), 쌍용 1927건(10.5%), 르노삼성 927건(5.0%) 등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1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2	11	13	14	28	30	7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796,490,750	3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7,522,588	33
3	5개 숫자 일치					1,589,821	1,194
4	4개 숫자 일치					50,000	60,100
5	3개 숫자 일치					5,000	1,012,637

팝콘복권 (제215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760709
2	1억	2조	910186
		1조	746052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27292
5	50만	각조	4176
6	2천	각조	61
		각조	14
		각조	56
7	1천	각조	2
		각조	8
		각조	4

▼ 코스피지수 1,986.14 (-2.82)
▲ 코스닥지수 509.20 (+2.75)
▼ 금리 (국고채 3년) 3.14% (-0.03)
▲ 원·달러 환율 1,143.80원 (+4.40)
※수치는 10일 기준 1주전과 비교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2월 20일